

한미 FTA 1주년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

1. 세미나 개요

- 행사명 : 한미 FTA 1주년 기념 세미나(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: A One-Year Anniversary Commemoration)
- 기간 : 2013. 3. 12(화)
- 장소 : CSIS 컨퍼런스 센터, Washington D.C(워싱턴 DC)
- 주최 : Center for Strategic and Int'l Studies(CSIS) - Korea Economic Institute(KEI)
- 참석인사 : 존햄리(CSIS 소장), 최영진(주미한국대사), 매튜 굿맨(전국무부 선임고문), 캐슬린 스티븐스(전 주한 미국대사), 카란 바타야(전USIR 부대표), 스캇 밀러(CSIS 국제산업 석좌) 등

2. 한미 FTA 패널 토론

☐ 패널별 토론 주요 내용

- 캐슬린 스티븐스(전 주한 미국대사)
 - 한미 FTA를 통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약
 - 협정 협상을 준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보여준 과정과 능력은 한미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
 - 또한 상호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정권에서 협의가 시작되어 또 다른 정권에서 이루어진 협상이기 때문에 해당 협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봄
 - 글로벌 금융 위기, 한미간 정권 교체 과정 속에서 협정이 비준됐고 양국의 국민 모두가 한미 FTA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함
 - 지난 수년간 치열한 토론을 거친 한미 FTA는 발효됐으며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

- 카란 바티아(전 USTR 부대표, 현 GE 부회장)
 - 한미 FTA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뤄낸 쾌거
 -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될 수 있었음
 - 특히 한국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판단됐으며 실제로도 그런 능력을 증명해냈음
 - 조지 W. 부시 행정부 시절 USTR 부대표로 한미 FTA 협상을 마지막까지 리드했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에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음
 - 이제는 양국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좋은 협정인 한미 FTA를 조정하고 솔직한 파트너십 관계로 이끌어야 함
- 스캇 밀러(CSIS 국제산업 석좌)
 - 한미 FT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협정
 - 한국은 동아시아에 키를 쥐는 국가이며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음
 - 무엇보다 한미 무역규모가 축소되는 시점에 FTA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무역이 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음
 - 비판자들은 언제나 비판만 하지만 FTA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간에 이익이 있는 상호 협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협정이 바로 KORUS임
 - 현재까지 살펴보면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강세인 금융, 보험, 서비스 등의 무역 효과는 향후 시간이 지나감에 나타나게 될 것임

□ 기타 발표 내용

- 도널드 만줄로(KEI 소장)
 - 양국간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FTA의 진정한 목적 달성
 -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갖으며 중소기업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FTA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임
 - 1주년 시점에서 앞으로 주력해야할 부분은 스몰비즈니스의 활성화로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방향을 모색해야함

행사 사진

